백암산 고로쇠 채취 시작

'장성 백양·남창 고로쇠 협회'(회장 한봉운) 회원들이 23일 백암산에서 고로쇠 채취를 시작했다. 가격은 18ℓ 1말에 5만원. 전남의 경우 지난해 681농가에서 140만ℓ(7만8천 통)를 판매, 36억원의 소득을 올렸었다. 단풍나무과인 고로쇠 나무의 수액(樹液)은 '경칩'(驚蟄·3월6일)을 전후해 채취하며, 당류(糖類) 성분이 있고 위장병·폐병·신경통·관절염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성 백암산=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남성들, 여직원 없어도 '입조심'

간접으로 전해 들어도 '성희롱'

인권위 "공적 활동 영향"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남성 직원끼리 같은 회사 여직원에 대해 성적 발언을 한 것을 해당 여직원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여·20대)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성직원끼리 A씨에 대해 '음료에 약을 타서 어떻게 해보지 그랬느냐'는 등 성적 발언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A씨가 직접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여·20대)씨가 다니는 회사의 고문이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고용관계나 직장 내 상하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고문은 회사 직원의 공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은 권력 관계를 이용한 직장 고용주나 상급자 등과 부하 여직원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이번 심의에서는 성희롱의 '간접성'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리비 장기 체납 세대에 단전 불이익"

〈斷電〉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 잇따라

광주 79곳 바꿔…19곳은 전기 끊어

'주민동의를 구합니다.' 광주시 L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J(45)씨는 최근 아파트 현관에 안내문을 내걸었다.

A4 한 장 분량의 안내문에는 '오랫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은 세대로 인해 관리사무소 측이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 일부를 수정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측에 전기를 끊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J씨는 "전체 320여 세대 중 극소수인 3~4세대 정도가 6~7개월 정도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고, 금액은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15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며 "(체납자에게)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도 해봤지만 별 반응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들이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거쳐 전기를 끊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고치고, 일부 아파트는 체납 세대의 전기를 끊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아파트 중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단전(斷電)과 관련해 관리규약을 바꿔 한전과 재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총 79곳에 달한다.

구(區)별로는 ▲동구 1곳(D아파트) ▲서구 14곳(I·H·K·S·D 아파트) ▲남구 16곳(H·L·K·S·M·B·A 아파트) ▲북구 26곳(H·C·S·M·P·S·W·B·R·K 아파트) ▲광산구 22곳(L·K·M·K·S·A·N·J·I 아파트) 등이다. 이들 중 19곳은 한전에 요청, 장기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세대의 전기를 끊었다.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는 단지당 3~6곳 정도다.

북구 L 아파트 관리소장은 "몇몇 체납세대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자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자체 관리규약을 바꾸고 있다"며 "관리비 중에서 강제성이 있는 전기료 규약을 개정, 한전 측에 전기를 끊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비 등 전기료는 보통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등 1인 명의로 한전과 계약해왔다.

한편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전기사용 계약자 중 3개월 이상 전기료를 체납, 단전 대상으로 분류된 가구는 올 현재 광주의 경우 2천900호, 체납액은 약 2억6천만원에 달한다. 한전은 단전대상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 최소한(약 220W·형광등 1개 약 20W)의 전기만 공급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자살, 또 자살…

40대 가장· 20대 여대생 잇따라 숨져

가출한 아내와 헤어진 연인 때문에 고민하던 40대 가장과 20대 여대생이 잇따라 자살했다.

23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K아파트에서 이모(43)씨가 집 현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들(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가 최근 남편 몰래 빚을 진 뒤 1주일 전 가출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유족들의 진술로 미뤄, 이씨가 아내 문제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박모(여·23·C대학 3년)씨가 주방 문틀에 목을 매 숨졌다.

박씨를 처음 발견한 동생(여·20)은 경찰에서 "언니가 1년6개월 간 사귀어온 캠퍼스 커플과 결별한 후 이를 비관해 왔다"고 진술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해남에 불법 체류 중국인

단속 피해 달아나다 사망

농촌에서 몰래 일하던 불법체류자가 당국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졌다.

22일 오후 2시10분께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에서 중국인 여모(32·중국 지린성)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여씨는 동료 중국인 2명과 함께 밭에서 일하던 중, 첩보를 들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0여 명이 검거를 위해 쫓아오자 황급히 도주하던 중이었다.

여씨는 지난해 5월15일 1개월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했지만, 이날까지 출국하지 않은 채 해남의 배추 판매업체에 취업, 덕호리 밭에서 배추를 나르고 있었다.

경찰은 여씨의 주머니에서 기관지염 치료약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질병을 앓던 여씨가 갑자기 500여m를 무리하게 달리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광주·전남에는 중국·필리핀 등 2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20%인 4천여 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유니 죽음 '베르테르 현상' 우려

유명인 자살 후엔 자살자 크게 늘어

가수 유니의 죽음이 또다시 '베르테르 현상'(Werther effect)을 몰고 올 것인가?

1774년 발행된 괴테(Goethe)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The Sorrows of Young Werther'에서 주인공 베르테르는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자 끝내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후 유럽에선 권총 등으로 자살을 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했으며, 이 같은 모방 및 동조 자살은 '베르테르 현상'으로 불렸다.

지난 2005년 2월 영화배우 이은주씨 자살은 그 대표적인 사례.

이씨의 죽음 이후 한 달간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는 하루 평균 0.84명에서 2.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회학자들은 "유명인의 자살에서 오는 동조 의식이 자신의 자살을 합리화하는 효과를 나타내 죽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사람, 과거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자살자는 6천900여 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8번째였으나, 2005년에는 1만2천여 명으로 4번째로 껑충 뛰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도면 파기 안했다"

세하지구 택지 개발 관련 광주시 공무원 진술 번복

광주시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 도면을 파기했다고 진술〈본보 1월23일자 7면〉했던 광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관련 도면을 제출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청 건축주택과 백모(40·토목 7급)씨가 세하지구 택지개발 도면 2부를 들고 찾아와 공문서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백씨는 "파손한 줄 알았던 도면이 보관함에 있었다"며 "오래전 일이라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광주시가 세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백씨가 도면을 제출함에 따라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나우찬

〈7036〉 김종두

공터 주차장 승용차 불 타

23일 새벽 2시9분께 순천시 인제동 한 공터 주차장에서 A(여·40)씨의 벤츠 승용차가 불에 타 5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배에서 휘발유 훔쳐 車에 주유

쌍나팔

○…어선에서 선박용 휘발유를 상습적으로 훔쳐 자신의 차에 주유한 20대 3명이 어민들에게 붙잡혀 해경에 인계.

○…2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김모(23·여수시 소라면)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26일 새벽 2시께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항에 정박 중인 김모(47)씨의 어선에 몰래 들어가 기관 연료용 휘발유 3통을 가져가는 등 8차례에 걸쳐 휘발유 250여ℓ 를 훔쳤다는 것.

○…고교 동창생인 김씨 등은 기름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이던 어민들에 의해 붙잡혔는데 "승용차를 몰고 다니기 위해 휘발유를 훔쳤다"고 진술. /여수=강성훈기자 kangsw@